

review

May 2005

유 패스타 | 안옥현 | 박종순 | 루이즈 부르주아
최진기 | 박애정 | 심정리 | 김나영 | 픽애플
윤영화 | 송대섭 | 이정진 | 오이랑 | 문봉선
이철수 | 김찬일 | 남정민



왼쪽 · 송은영 <따라잡기 액자에서> 혼합재료 350×450cm 2005 오른쪽 · 안재홍 <꿈꾸는 물> 2003

혼성의 다양한 수사법과 현대미술의 담론

YOO FESTA展 3.29~4.17 유아트스페이스

지난해 이어 두 번째로 유아트스페이스에서 기획한(YOO FESTA 전)은 여러 젊은 작가들을 공모해 개인전과 단체전을 개최하는 행사로서, 요즘 같은 경제 불황기에 개인 회랑에서 개최된다는 점에서 무척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된다. 회랑 측에서 언급했듯이, 영국의 불황기에 등장한 영국의 yBa(young British artists) 그룹처럼, 젊은 예술가들을 통해서 현대미술의 중요한 구심점을 찾아 불황기의 영국 문화를 한걸음 더 전개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러한 행사는 우리 미술계에도 젊고 신선한 예술가들을 통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좋은 본보기라 하겠다.

이번에 참여하는 10인의 젊은 작가는 다양한 조형적 실험과 현대 사회를 읽어 내는 개인적인 조형실험을 떠나가고 있다. 지용호는 페고무 타이어를 도려내 거대한 상어를 만든다. 차바퀴의 저항을 높이는 무늬는 거대한 상어의 탐욕스러운 비늘이 되었고, 이러한 역설은 형태적인 유사성에 기초한 은유를 보여주는 수사법이며, 현대의 아이러니컬한 의미를 형성한다. 송은영은 자신이 그리는 행위가 거울에 비칠 때 흔적들을 찾아 현실 공간과 환상을 잇는 환영적인 실체를 만든다. 그림으로써 2차원적인 평면은 실제 공간. 벽과 바다, 천장라인으로 확대되어, 공간을 관통하는 사각형 액자와 형상을 만들어 낸다. 심정은은 선조적인 방식으로 동(銅)을 이용하여,

다양한 여인의 형태를 표현한다. 작가가 그리는 여인은 다름 아닌 어머니의 모습, 나이든 푸근한 여인으로 개인적인 정서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장희진은 화면에 요철을 만들고 그림을 그려 도드라진 풍경을 그린다. 마치 골판지 위에 그린 그림 같으면서도, 일견 확대된 디지털 화면의 흔들리는 영상과 같이 현대적인 시각이 녹아 있는 풍경화를 보여준다.

김호준은 안료 스틱을 직접 만들어, 캔버스 위에 굵고 난 다음 열을 가해 화면에 고착시킨다. 이렇게 그려진 형상은 숲이나 들을 암시하듯 색상과 터치를 얹히게 한다. 여기서, 반복된 터치로 그린 풍경은 원래 풍경을 넘어가는 다양한 모습으로 be-yond'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안재홍의 인물은 검은 선으로 얹혀 있어 인간을 억누르는 통제와 검열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한 인간의 '꿈꾸는 몸'을 제시한다. 이 속에서 억압과 그것을 벗어나고자 하는 한 주체의 의지를 반어적으로 담아내, 현대사회에서 인간의 의미를 잃게 한다. 한선현은 나무를 사용하여, 과거 같던 인물이나 정물을 제시한다. 이 조각 작품은 한편 작은 연극 무대같이 보여, 회화적인 환영 공간을 보여준다. 또한 그의 표현은 민예적인 목각의 전통을 차용하고 있어서 더욱 친근한 조형성을 열어 놓는다. 박종국은 공간을 선적으로 투시하여 그려 내면서도 개개 대상은 여러 점으로 한 공간에 묶어 놓는다. 이러한 공간은 복합적인 공간의

의미를 전달하면서도 풀, 인간 등을 같은 공간에 그려내어, 심성적인 면을 섞어 낸다. 진보경은 작은 확대 렌즈를 통해서 그 안에 제시된 형상들을 크게 보이게 해서 들여다보고, 자세히 본다는 의미(inspection)와, 몰래 보기의 욕망을 형상화한다. 이러한 시각은 전통적으로 미술에서 중요한 '보기'의 문제를 제시하는 작품이다. 전영근은 순수한 회화작품으로 일상의 대상들을 소박한 붓과 색감으로 그려 낸다. 이러한 그의 작업은 회화의 거대한 담론인 현대 미술에 대한 시각이기라기보다는, 자신의 주관적이며 신변에서 시작되는 시각으로서, 중심에서 벗어난 이야기인 탈현대주의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10인의 다양한 작업은 풍경을 지워 가며 그려 장소를 넘어선 '다른 장소'의 의미(김호준)를 제시하거나, 감춰지면서도 드러난 풍경화(장희진), 또는 동선과 그림자의 인물(심정은), 얹히고설킨 인물(안재홍), 일상의 소박한 정물(전영근), 액자와 실제 공간에서도 현실을 지시하면서도 초월(송은영) 하는 이질성의 공간을 만들어 낸다. 또한 타이어 로 만든 동물(지용호), 이질적인 시점의 복합(박종국), 또한 대상의 조형적인 실제 공간과 그속에 보이는 또 다른 이질적인 병렬적 시점(진보경), 목각을 통해 그려진 회화·조각의 혼성(한선현)에서도 혼성의 이질성을 찾을 수 있었다. 젊은 작가들이 만들어 내는 공간은 초월(beyond)의 의미를 다양하게 제시한 것이며, 여기서 현재의 미술의 중요한 담론인 '이질성'의 의미를 다시금 살펴볼 수 있었다.

강대섭 · 미술비평

위 · 지용호 <mutant9> 페타이어 70×220×40cm 2004
아래 · 심정은 <춤추는 어머니> 나무 동선 2000

